

■ 주요 뉴스: 미국 재무장관, 필요 시 예금 보호와 은행 안전 위해 개입할 방침

- 미국 2월 기존주택판매, 전월비 큰 폭 증가. 모기지금리 하락 등이 영향
- ECB, 은행권은 충분한 수준의 현금 보유. 다만 금리상승에 따른 경계감 요구
-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 유동성 축소 심화되면 ECB 금리인상은 불필요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은행권 불안 완화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

주가 상승[+1.3%], 달러화 약세[-0.1%], 금리 상승[+12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엘런 장관의 은행시스템 안정화 의지 등이 반영
유로 Stoxx600지수는 은행주 중심으로 매수세 강화되며 1.3%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이 배경
유로화가치는 0.4% 상승, 엔화는 0.9% 절하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이 영향
독일은 ECB의 금리인상 지속 예상 등으로 17bp 상승

※ 원/달러 1M NDF환율(1301.0원, -10.2원) 0.6% 하락, 한국 CDS 보합

주요지표					주요지표				
		3/21일	3/20일	전일대비			3/21일	3/20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002.9	3,951.6	1.30%	국채금리 10y	미국	3.61%	3.48%	12bp
	유럽	446.47	440.60	1.33%		독일	2.29%	2.13%	17bp
	중국	3,255.7	3,234.9	0.64%		영국	3.37%	3.31%	6bp
	일본	휴장	26,946	-	CDS 5y	한국	44bp	44bp	0bp
	한국	2,388.4	2,379.2	0.38%		중국	80bp	84bp	-4bp
환율	달러지수	103.22	103.28	-0.06%	위험지표	EMBI+	-	428	-
	유로화	1.0768	1.0721	0.44%		VIX	21.38	24.15	-11.47%
	엔화	132.51	131.32	-0.90%		WTI유	69.33	66.74	2.50%
	위안화	6.8793	6.8770	-0.03%	원자재	구리	401.9	397.6	1.08%
	원화	1,311.2	1,310.1	-0.08%		금	1,940.1	1,978.8	-1.96%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재무장관, 필요 시 예금 보호와 은행 안전 위해 개입할 방침

- 옐런 장관은 대규모 예금인출의 전염 위험이 증폭된다면 중소은행 예금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 한편 은행시스템은 안정을 되찾고 있고 예금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예금자 보호와 은행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당국의 단호한 의지를 나타낸다고 발언
- 최근 시행된 조치들은 특정 은행 혹은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은행시스템 전반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했다고 설명. 만일 중소은행이 대규모 예금인출 위협에 직면하면, 또 다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첨언
- 한편 관계자에 따르면, 재무부에서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일시적으로 모든 예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이와 관련하여 당국 내에서 다소 회의적 의견도 존재. 또한 공화당의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예금보호 범위 확대가 은행의 무책임한 행동을 유도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
- 이날 퍼스트리퍼블릭뱅크 주가는 급반등(+29.5%). 이는 경영진이 자본금 확충에 실패할 경우 사업 축소 혹은 일부 사업부의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기 때문. KBW 나스닥은행지수 역시 큰 폭 올라(+5.0%) 은행권 불안이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2월 기존주택판매, 전월비 큰 폭 증가. 모기지금리 하락 등이 영향

- 2월 기존주택판매(연환산 458만채)는 전월(연환산 400만채) 대비 큰 폭 증가. 특히 전월비 판매 증가율(14.5%)은 '20년 7월 이후 최고치. 이는 모기지금리 하락과 주택가격 안정 등에 기인. 주택경기 침체 종료 선언은 시기상조이나 꾸준히 저가매수가 유입되는 것은 긍정적(FWDBONDS의 Christopher Rubkey)

■ 미국 정부, 반도체 보조금 수령 기업에 대해 중국 내 생산 확대 제한

- 상무부가 공개한 반도체법 세규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들은 향후 10년간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이 금지. 이를 위반할 경우 보조금 전액 반환이 요구

■ 미국 공화당, 보다 엄격한 중소은행 감독이 필요

- 공화당의 릭 �캇 상원의원은 연준을 대신하여 중소은행을 보다 엄격히 감독할 수 있는 독립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으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중소은행에 대한 감독 강화 요구가 증가

■ 골드만삭스, Credit Suisse의 조건부자본증권(AT1) 전액 상각 영향은 제한적

- 이번 조치로 장기적 측면에서 AT1 수요가 크게 위축될 수는 있다고 지적. 하지만 해당 자산이 신용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에 이에 따른 전염 위험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

■ ECB, 은행권은 충분한 수준의 현금 보유. 다만 금리상승에 따른 경계감 필요

- 금융감독위원회 엔리아 위원장은 역내 은행들의 현금 보유 규모가 의무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강조. 다만 금리상승 등으로 은행들은 과거와 같이 저비용의 자금조달과 자산가격 상승 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경고

■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 ECB는 유동성 축소 심화되면 금리인상 불필요

- 매파적 성향으로 인식되는 홀츠먼 총재는 은행권 불안이 진정될 것으로 단언할 수 없다고 발언. 다만 은행권 불안이 심화되어 유동성 축소가 지속된다면 ECB는 금리인상 속도를 늦추거나 금리인상을 중단할 수 있다고 언급

■ 중국 정부, 반도체 관련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건 완화를 검토

-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국은 자국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좀 더 용이하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 또한 정부 주도의 연구 강화도 추진

■ 호주중앙은행, 경기둔화 등을 고려하여 금리인상 중단 고려

- 3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향후 경제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금리가 이미 제약적인 수준에 이르렀다는 의견을 제시. 이에 현행 금리인상 기조를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3/22 현지시각 기준)

- 3월 FOMC, ECB 라가르드 총재 강연, 영국 2월 소비자 및 생산자물가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은행권 위기, 심각한 경기침체 초래할 가능성은 낮은 편 - 블룸버그

(This Banking Crisis Won't Wreck the Economy)

-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으로 일부에서는 과거 금융위기와 같은 심각한 경기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그러나 다수의 전문가들은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나 대부분 예측 및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이는 '08년 금융위기 및 팬데믹을 경험하며 형성된 금융위기 관련 학습효과에 기인. 또한 SVB 등이 대규모로 보유한 국채의 경우 재할인창구 활용 등을 통해 유동성 공급이 가능. 아울러 경기 둔화가 진행될 경우 금리가 하락하면서 안전자산인 국채 가격이 상승하므로 관련 문제를 완화시킬 것으로 판단
- 양호한 가계재정 등도 소비 혹은 성장둔화를 제한할 것으로 기대. 다만 연준이 금리인상을 주저한다면 고물가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증가

■ 연준의 통화정책, 금융시스템 안정화 및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 모두 중요 - 블룸버그

(The Fed Can Fight Both Inflation and Bank Contagion)

- 최근 은행권 불안이 불거지고 있지만 문제 은행들이 전체 은행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심각한 신용위축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 이에 연준은 유동성 공급 확대를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을 도모하지만, 동시에 단기금리 조정 등을 통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특히 3월 FOMC에서 연준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 연준이 금리인상 중단에 나선다면 시장 패닉을 대비하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지혜가 필요. 반면 금리인상을 단행한다면 은행 이익 감소 등이 발생하므로 이와 관련된 충격 완화 대책이 요구

■ SVB 사태의 재발 방지, 도드-프랭크법 폐기 고려 등이 가능 - WSJ

(Want to Prevent SVB-Style Collapses? Scrap Dodd-Frank)

- 금융위기 이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은 은행의 포트폴리오 및 위험관리의 획일화를 유도하여 오히려 시스템 위험을 높이는 결과 초래. SVB 사태 등으로 기대와 달리 도드-프랭크법을 통한 위험관리 실패 예방이 어렵다는 사실 확인
-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은행의 자본 확대가 거론. 이러한 방안이 현실화되면 금융시스템 전체를 취약하지 않게 하면서 개별은행들의 과도한 위험 감수 방지가 가능

■ **은행 사태 해결, 과도한 규제금융 제한 등 4가지 접근법 가능 - Financial Times**

(Four ways to fix the bank problem)

- 현 단계에서 은행위기가 얼마나 심각해질지 불명확하나 금융위기 이후 개혁이 충분하지 않았음은 확인되었고,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규제완화는 이를 증명
- 이러한 상황에서 개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접근법이 필요. 첫째, 정부 규제금융이 은행으로 하여금 더 많은 레버리지와 위험을 초래. 이에 과도한 규제금융 대신 시장경제에 위임. 둘째, 자산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은행에 금리상승 위험 등을 포함한 스트레스 테스트와 유동성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
- 셋째, 은행의 레버리지 사용 수준을 낮춰 건전성을 강화. 넷째, 예탁자의 예금으로 대출하지 않고 이에 상응하는 자금 전액을 지급준비금이나 국채로 보유하도록 매칭하는 일명 ‘시카고 플랜’ 시행

■ **연준, 은행대출 축소 및 규제강화에 따른 긴축효과를 정책결정에 반영할 필요 - WSJ**

(The Fed Flies in the D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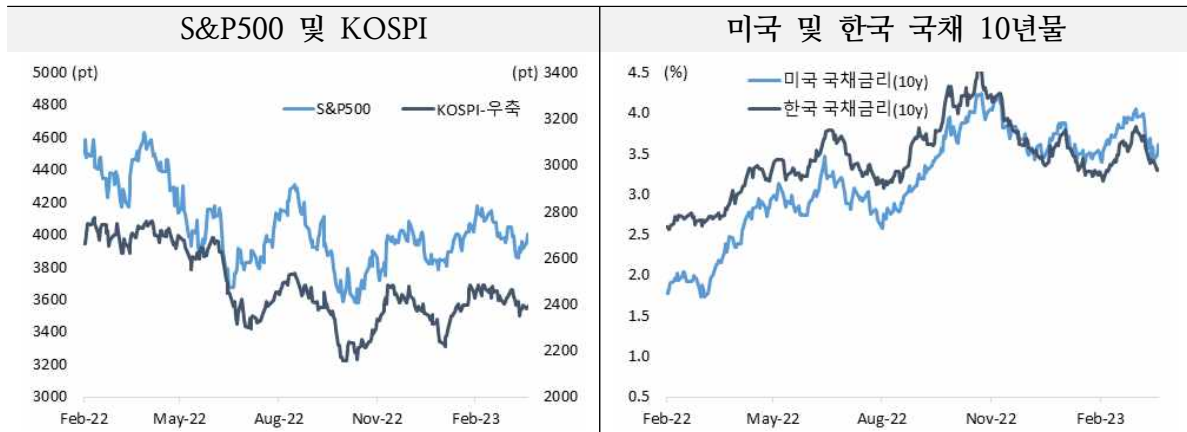
■ **SVB 파산 사태, 과거 사례 고려 시 투명성 강화 등이 중요 - Financial Times**

(SVB lessons in the forgotten history of the Bank of the United States)

■ **은행위기 불구 미국 증시 안정, 투자자의 현 위기극복 기대 등에 기인 - 블룸버그**

(Markets Go Calm: A Lehman Pause or the Real Thing?)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